

문재인 정부 대북 핵심 부서장들 검찰수사

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안해...북측에 인수 의사 타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출국 금지...서훈 귀국시 통보 조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대북 핵심 부서장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어민들을 송환해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받은 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공개에 이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어민을 촬영한 영상이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송환법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이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홍익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더구나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어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정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며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홍익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일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음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어민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며 남긴 음성이 담긴 것으로 보여, 공개 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을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박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현지에서 머무는 서 전 원장의 경우 입국 시 그 사실이 검찰에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또 두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추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김연철 전 장관은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서훈 전직 원장은 국정원이 이달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상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를 고발됐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어민북송 사건 국정조사 주장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사적채용을 동시에 국정조사하자는 역제안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행사를 마친 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 “개헌 더는 미뤄선 안돼...개헌자문회의 구성 하겠다”

“여야 개헌특위 구성해달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인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통해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며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을 위해 많은 노력을 거쳤다. 국민의 공감도 폭 넓게 형성돼 있다. 이제 실천에 나설 때”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며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

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열자”며 “그레이트 대한민국이 전진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개헌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자”며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헌이 아닌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다.

그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방법·범위를 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들과

정사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정당에도 요청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표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으나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다”며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야 제헌절 행사서도 원구성 신경전...과방위 압초에 좌초 위기

행안위 등 놓고 양보 없는 대치

여야 지도부가 17일 제헌절 74주년 경축식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소통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를 놓고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에 앞서 의장접견실에서 5부 요인,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

표,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과 여야 3당 지도부가 전원 참석했다.

여야가 디테일로 삼았던 제헌절 당일까지 원구성 협상 타결을 하지 못한 가운데 대화에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됐다.

김 의원은 이날 내로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을 여야 지도부에 당부했고, 권 대행은 ‘선 행정부질문, 후 상임위 선출 협의’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협상 과정에서 충돌해온 권 대행과 박 원내대표 사이에는 환담 내내 미묘한 ‘불꽃’이 튀었다.

붉은색 넥타이를 맨 권 대행이 환담장에 도착해 박 원내대표와 악수 인사를 나누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 부의장이 웃으며 “눈을 좀 마주치시라”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맨날 눈 마주친다. 불꽃이 튀어서 문제지”라며 농담으로 받아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나 행안위 등 중 하나는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에 넘기기로 양보한 만큼 과방위와 행안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준석 재심·가처분 신청 없이 장외 여론전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잠행이 깊어지고 있다. 징계 이후 10일째인 17일까지 이 대표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윤리위 재심 청구 기한인 이날까지 이 대표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현재까지 하지 않자,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사실상 징계를 ‘수용’한 것이라 말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에게 호의적인 당내 중진들도 징계 발표

후 이 대표에게 “실력 행사에 나서지 말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의 정당성을 놓고 다투며 ‘내전’을 선언할 경우 당이 더 큰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 사회관계서비스망(SNS) 설전 등 그간 주특기로 이용했던 고공 여론전을 사실상 멈춘 듯한 모양새다.

대신 2030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호남지역 구석 구석을 돌며 밀박당 지지층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라운드를 섬어항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배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배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